

■ 주요 기사

○ 실업급여 지급확대 추진 관련(3건)

중앙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는다
동아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매경	[정부 신년 업무보고] 65세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 검토

○ 미세먼지 관련(3건)

조선	火電이 내뿜는 미세먼지, 정전기로 99%까지 없앤다
매경	노후경유차 6만대에 조기폐차 보조금
한겨레	환경부 “미세먼지 감축 최우선” 말로만

○ 공기업 채용 관련(2건)

동아	11개 전력 공기관, 올해 신입사원 3250명 채용
경향	공공기관 취업 증가 ‘빛과 그림자’

■ 주요 칼럼 · 기고

○ 일자리 창출 관련(2건)

매경	[매경포럼] 일자리 전쟁의 낙오자가 될 것인가
한경	[사설] 청년 일자리 다 틀어막아놓고 무슨 대책이라는 건가

○ 기후변화 관련(2건)

한경	[기고] 신기후체제, 산림탄소경영이 답이다(신원섭 산림청장)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환경	제목	火電이 내뿜는 미세먼지, 정전기로 99%까지 없앤다 B11면
		내용	국내에서 건식·습식 전기집전기 기술이 모두 개발된 상태지만, 현재 국내 화력발전소는 모두 건식을 사용. 습식은 추가 설비가 필요해 비용이 40~50% 정도 더 들기 때문
중앙	노동	제목	경제 살리려 휴일도 포기한 프랑스...백화점들 111년 만에 일요일 영업 A2면
		내용	프랑스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종교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1906년 이래 법으로 휴일 영업을 금지해 오다 2015년 상점의 일요일 영업 규제 완화법이 통과
		제목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는다 A18면
		내용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69세로 상향 조정
	고용 복지	제목	[단독] 파견·하도급 비정규 근로자 하는 일, 3월부터 공개 E1면
		내용	파견이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맡고 있는 직종과 업무 공표해야. 고용부는 이런 내용으로 고용형태공시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시행할 방침
	고용 복지	제목	[인구 5000만 지키자] '신생아 40만' 붕괴 우려...저출산 컨트론타워 강화한다 A12면
		내용	저출산 정책의 중심 타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하지만 2015년 12월 이후 열린 적이 없다. 출산율이 급락하자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
동아	노동	제목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지급 추진 A14면
		내용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30일(기존 90일)만 무급휴직을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 65세 이상 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고용 복지	제목	'빅5' 탈락 한국 車생산, 파업이 결정타 B1면
		내용	한국이 11년 만에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빅 5'에서 밀려남. 현대·기아차 등 주요 업체들이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이 생산량 순위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업계는 분석
	고용 복지	제목	11개 전력 공기관, 올해 신입사원 3250명 채용 B1면
		내용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 공공기관이 올해 신입사원 3250명을 채용. 올해 전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은 약 2만 명에 달할 예정. 한전은 9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매경	고용 복지	제목	[단독] 청년초봉 200만원시대…베일 벗은 '반노믹스' A1면
		내용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일자리 중심 포용적 성장'을 경제 공약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기로.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라는 시대적 난제를 풀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규제 혁파라는 시장주의적 정공법을 택함
		제목	[정부 신년 업무보고] 65세이상 취업자도 실업급여 검토 A8면
	고용 복지	내용	고용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상한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69세로 올려 올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시행
		제목	[매경포럼] 일자리 전쟁의 낙오자가 될 것인가 A34면
	내용	일자리 원천이 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비롯한 친기업 정책이 필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곳을 집중 지원하고, 서비스업같이 고용 창출력이 높은 업종을 육성해야	
환경	제목	노후경유차 6만대에 조기폐차 보조금 A1면	
	내용	정부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늘어난 6만대로 확대하고 교체를 적극 유도하기로.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짐	
한경	노동	제목	검찰,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확대 29면
		내용	작년 체불액 1조4000억 '최대'. 검찰이 상습·악의적으로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함
	제목	주 40시간 미만 일한 전화상담원 뇌출혈 진단…"업무상 재해 아냐" 29면	
	내용	고객 상담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고용 복지	제목	[사설] 청년 일자리 다 틀어막아놓고 무슨 대책이라는 건가 35면
		내용	일자리란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장에서 수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 반기업, 반시장이 아니라 친기업, 친시장으로 기업과 시장, 즉 경제를 살려내야
환경	제목	[기고] 신기후체제, 산림탄소경영이 답이다(신원섭 산림청장) 34면	
내용	산림은 거대한 온실가스 흡수장치로, 계획적인 산림경영과 조림이 필요. 온난화 방지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경향	노동	제목	성남시도 '노동이사제' 도입 A12면
	내용	경기 성남시가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 이사제'를 도입.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	
고용 복지	제목	공공기관 취업 증가 '빛과 그림자' A16면	
	내용	공공기관은 올해도 역대 최대인 1만9862명을 신규로 뽑을 방침이어서 공공기관 취업자 수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청년층의 '신의 직장' 쏠림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겨레	노동	제목	스웨덴 ‘하루 6시간 노동’ 실험…행복도·생산성 상승 16면
		내용	스웨덴 예테보리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5년 2월부터 2년간 시청과 병원, 양로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줄이는 실험. 지난 2년간 일부 노동자들의 행복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제목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프랑스보다 한국이 시급 B4면
		내용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자 2402명을 대상 조사 결과, 전체 노동자의 86.1%는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일주일 평균 11시간에 이름
	환경	제목	환경부 “미세먼지 감축 최우선” 말로만 12면
		내용	올해 미세먼지 감축 예산 증가액 대부분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형식으로 자동차산업 지원에 들어가고, 정작 감축 효과가 높은 부문 사업비는 제자리에 머물거나 줄었기 때문

<끝>